

강원 영동 최악 가뭄... 농촌공사 강릉지사 선제적 가뭄 대책 추진

윤 박현욱 기자 | 승인 2025.07.04 10:25

저수율 40% 이하 급감... 간이양수장 가동·제한급수 등 총력 대응



(한국농업신문=박현욱 기자) 강원도 영동 지역이 역대급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,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제적 용수 확보 대책에 나섰다.

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는 지난 3일 김명일 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이 강릉시의 오봉저수지, 사천저수지, 판교취입보 등 가뭄 피해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.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가뭄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, 현장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.

강릉 지역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235mm로, 평년(471mm)의 절반 수준인 49%에 불과하다. 특히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현재 36.4%로, 평년 대비 57.5%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.

이에 강릉지사는 두산취입보와 판교취입보 등에 간이 양수시설을 설치해 직접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긴급 대책을 시행 중이다. 이와 함께 월호평동, 사천진리 일대의 간이양수장을 가동하고, 저수율 40% 이하 저수지에는 '2일 급수·2일 단수' 방식의 제한급수를 도입하고 있다.

가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, 강릉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,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. 강원도·강릉시 등 지자체와도 협의해 물 절약 방안과 생활·농업용수 제한급수 방안 등 종합적인 가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.

김명일 본부장은 "항구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"며 "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박현욱 기자